

강의를 통해 굿 스피커에 한발 더 다가서다.

20180490 사회학과 김윤하

글말교실 강의를 듣기 전 저는 '그냥 한번 어떤지 들어가 볼까'하는 가벼운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글말교실에 참여하신 교수님의 전공 수업을 듣던 저는 글말교실 수업 참여를 추천하시던 교수님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동영상으로도 원하는 시간에 쉽게 볼 수 있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뭔가를 배워서 성취하겠다는 마음보다는 '한번 어떤지 들어가 볼까'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굿 스피커의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전달"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강의 제목을 들었을 때는 말하기에 대해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또렷한 목소리로 논리와 근거를 잘 들어서 말하면 된다." 정도의 포괄적인 강의를 예상해 별로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강의 제목이었던 "굿 스피커의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전달"이 제게는 너무 멀게 느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과연 1시간 이내 굿 스피커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이런 제 예상과 달리 강의는 구체적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논리와 근거를 들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면접에서 필요한 스토리텔링은 제게 신선하게 다가왔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독관의 시선을 사로잡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면접 준비를 하며 "단순히 알기 쉽게 전달하면 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제 오만함을 깨트려 주는 강의였습니다.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정의하는 방법을 통해 스토리를 만들어서 상대방의 흥미를 유발해야 한다는 것은 제 스피치 습관에 대해 돌아보게 했습니다.

특히 이번 강의는 제게 결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전국대학생스피치 대회 본선 진출과 수상입니다. 강의에서 배웠던 서론, 본론, 결론의 전개 과정과 Z자 시선 맞추기 등 연설에 대한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들이 제 글과 말의 완성도를 높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배움을 바탕으로 전국대학생스피치 대회 예선에 도전했고 10명을 선발하는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장려상이지만 실제 수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면접이나 대회를 준비하는 다른 학우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평소 말하기와 글쓰기에 대해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수업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연설에 대해 돌아볼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도 강의를 열린다면 조금 더 한정적으로 주제를 설정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이 강의에 대해 조금 주저한 것도 다소 포괄적인 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학 수업 발표 상황이나 면접 상황 더 나아가 연설 등 특정 상황에 적합한 스피커의 역량에 대해 좁혀서 자세히 강의해 주신다면 듣는 학우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강의를 신청할 것입니다. 좋은 강의 준비해주셔서 고맙습니다!